



의정부주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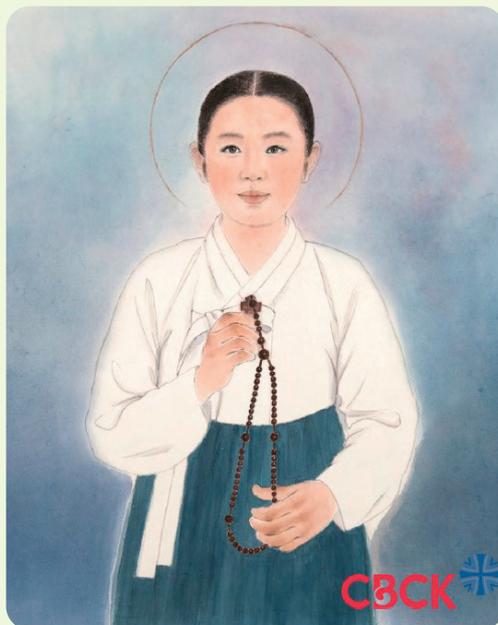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희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정철염 가타리나 (1817-1846)

경기도 수원(水原)에서 태어난 정철염은 포천의 어느 양반집 하녀로 들어가 주인집 가족 중 신자 한 사람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다. 20세 되던 해에는 동지날 미신 행위에 참여하라는 주인의 지시를 거부하여 혹독한 벌을 받았는데, 그 후 계속된 강요로 결국 서울로 피신하여 교우들의 집에 몸 붙여 살았다.

1845년 김대건 신부의 집에 하녀로 들어간 정철염은 김 신부가 붙잡힌 뒤, 현석문 회장이 마련한 집에 숨어 있다가 1846년 7월 11일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9월 20일, 6명의 교우와 함께 30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성화_염조원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연중 제21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시편 86(85),1-3 참조

주님, 귀를 기울이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나이다.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사오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여호 24,1-27.15-17,18.ㄷ

화답송 시편 34(33),2-3,16-17,18-19,20-21,22-23(◎9ㄱ)

◎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굽어보시고, 그분의 귀는 그 부르짖음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

○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짓밟힌 이를 구원해 주신다. ◎

○ 의인이 몹시 불행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불행에서 구하

시리라. 그의 뼈를 고스란히 지켜 주시니, 뼈마디 하나도 꺾이지 않으리라. ◎

○ 악인은 악행으로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자 짓값을 받으리라. 주님이 당신 종들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짓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에페 5,21-32

복음 환호송 요한 6,63.68 참조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

복음 요한 6,60ㄴ-69

영성체송 시편 104(103),13-15 참조

주님, 땅은 당신이 내신 열매로 가득하옵니다. 당신은 땅에서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인간의 마음 흥겹게 하는 술을 주시나이다.

스켄의 역사



아곱의 우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을 이끈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스켄에서 마지막 연설을 하며 ‘낮선 신을 버리고 주님만 따르겠다.’는 백성의 서약을 받아들입니다(여호 24장). 스켄은 사천 년의 역사를 지닌 도시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65km가량 떨어져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여호수아는 백성과 계약을 맺고 그에 따른 규정과 법규를 세웠습니다. 이를 증거할 돌기둥도 세웠습니다(1-28절). 여호수아의 이런 행보는 시나이산 계약을 중개하고 율법을 전달한 모세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세도 계약 체결 당시 산기슭에 기념 기둥 열두 개를 세운 바 있습니다(탈출 24,4). 그런데 여호수아는 왜 계약 체결지로 스켄을 택하였을까요?

그 까닭은 스켄이 지닌 종교적 중요성에 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고(창세 12,6-7; 33,18-20), 해당 본문에 따르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모세 역시 시나이산 계약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선언할 장소로 스켄을 지목한 바 있습니다(신명 11,29; 27,12-13). 여기에는 스켄이 곡창 지대를 낀 교통 요충지라는 점도 한몫한 듯합니다. 족장 도로가 통과하는 이곳은 가나안의 동서남북을 잇는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족장 도로란 아브라함, 이사악, 야곱이 다닌 길로서 가나안 최남단의 브에르 세바에서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거쳐 스켄까지 이어지던 길입니다. 옛 백성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족장 도로로 다니곤 하였다는 사실은

예레 41,5 등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켄에서는 백성이 장차 가나안에서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리라는 기원을 담을 수 있었을 터입니다. 스켄에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샘이 있고(요한 4,5-6) 목축에도 좋은 성읍이라 야곱의 아들들도 방목을 위해 스켄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창세 37,12-14).

스켄의 위상은 왕정 시대에도 이어져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구실을 얼마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아들 르하브암이 왕위를 이으려고 이스라엘의 열두 원로들을 찾아간 곳도 스켄입니다(1열왕 12,1-19).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린 뒤에 스켄은 북왕국의 첫 수도가 됩니다(12,25). 심지어 오늘날까지 스켄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성스러운 장소입니다(요한 4,20).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스켄은 그 신성함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계약 체결의 증거로 ‘스켄의 향엽나무 밑에’ 돌기둥을 세우지만(여호 24,26), 이미 창세 35,2-4에는 야곱이 공교롭게도 ‘스켄의 향엽나무 밑에’ “낮선 신들”을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야곱은 “낮선 신들”을 묻기만 하고 태우지 않았으므로(신명 7,5.25 등), 스켄의 나무 밑에는 여전히 “낮선 신들”이 묻혀 있었던 셈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스켄의 신성함은 처음부터 유지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스켄은 성소가 될 수 없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힘을 실는 근거가 되었으니(『창세기 랍바』 81,3), 그 지나온 역사가 흥미롭습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 ① - 대중주의와 자유주의 형태의 정치, 취약한 이들에 관한 관심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모든 형제들」을 통해 ‘이 땅’에서 평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우애 실천에 기반한 세계적 형제애의 공동체 건설”이 필요하며, 이는 교회의 복음화 사명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은 시대의 징표를 ‘관찰’(성찰)하고, 신앙과 이성의 빛으로 ‘판단’하며, 구체적으로 ‘행동’하기를 방법론으로 제시합니다. 이런 구도에서 보면, 회칙의 “제1장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과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기”는 성찰 영역에 속하고, “제2장 길 위의 낮선 이”와 “제4장 전체 세계에 열려 있는 마음” 그리고 “제5장 더 나은 방식의 정치”는 판단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은 정치를 설명하는 대신, 사회적 우애 실천에 기반한 보편적 형제애의 세계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공동선이 요구하는 바에 부응하는 정치(政治)’가 필요하다는 사실만을 말합니다. 통념상, 정치는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따위의 역할을 하는 것”(「표준국어대사전」)을 의미합니다. 이를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에 따라 설명하면, 인간 존엄과 인권 보장, 공동선의 증진은 정치의 ‘목적’이고, 권력의 획득과 유지와 행사는 그 ‘수단’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 활동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질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가톨릭교회는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포용을 촉구합니다.

우리 사회는 한편으로 모두가 전문가라 할 만큼 ‘정치 과잉’,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 부재’의 현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과잉은 앞서 말한 정치적 ‘수단’에만 집중하는 것이겠는데, 더 정확히는 정치인이든 시민이든 권력다툼에 몰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 부재는 정치적 ‘목적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겠으나, 권력다툼에서 패한 집단이 갖는 ‘점잖은 반감’ 정도로 보는 게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치 과잉이든 부재든 그 폐해를 누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가장 극심하게 겪는지는 자명합니다. 하느님 구원의 표지이며 도구인 교회가 정치 활동에 대한 성찰과 판단 기준에 있어 사회적 약자의 품위 있는 삶과 공동체 생활에 책임 있는 참여를 보장하려는 선의의 노력을 포기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회칙 「모든 형제들」이 ‘오늘날 일부 대중주의(populism)와 자유주의(liberalism) 형태의 정치’(155-169항)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취약한 이들에 관한 관심의 결여가 이른바 대중주의나 자유주의 뒤에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대중주의 정치는 그 자체의 [이념적] 목적을 위해 취약한 이들을 선동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런 형태의 자유주의 정치는 유력한 이들의 경제적 이익에 일조합니다. 그런 대중주의와 자유주의 정치 활동으로는, 가장 취약한 이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이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여러 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열린 세계를 구상하는 일이 어려워집니다”(155항). 🌐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고을에 가셨다.” (루카 7,11)

완치판정을 받았던 암이 재발해 온몸으로 전이되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한 50대 여성 환자와 그 어머니를 위한 방문이었다. 환자의 어머니는 딸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엄마가 걱정할까 힘든 내색 한 번 하지 않는 게 속상하다면서도,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엄마가 딸의 고통을 까맣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눈물지었다. 그다음 주에 만난 환자의 어머니는 간호사가 아픈 딸에게 너무 쌀쌀맞게 구는데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겠다며 힘들어했다. 그리고 얼마 전 나는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가 우연히 그 어머니와 마주쳐 딸이 있는 병실을 방문했는데, 환자가 말할 힘도 없어 보이길래 간단히 인사하고 안수기도만 하고 돌아 나왔었다.

며칠 후 병원 봉사자에게서 전화가 왔다. 환자의 어머니가 딸의 병자성사를 요청한다는 것이었다. 그때 나는 연수차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무심코 봉사자에게 위급한 상황인지 확인해달라고 했다. 잠시 후 봉사자가 다시 전화해 상황을 알려줬다. 급한 일이냐고 물으니 환자의 어머니가 ‘급한 병자성사는 아니고 병자 영성체를 청했던 것이니 언제고 신부님 편할 때 방문해 주세요.’ 했다는 것이다. 일단 급하지 않다는 말에 안심한 나는 연수 끝나는 대로 바로 방문하겠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했다.

그런데 연수가 끝나기 하루 전날, 다시 전화가 왔다. “따님이 돌아가셨다고 환자의 어머니께서 연락하셨습니다. 지난번 통화에선 괜찮다고 했지만 이제 생각하니 딸이 많이 버티고 있었던 것 같으며 우세요.” 나는 아찔했지만 애써 정신을 차린 다음, 울고 있는 봉사자부터 달랬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었던 일이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지만 통화를 마치고 나서부

터 연수를 어떻게 마치고 돌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자책(自責)하면서 나 자신을 쥐어뜯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간호사에게 싫은 소리 한번 못하던 노인인 걸 알면서 급한 일이었냐고 물어? 말할 기운조차 없어 보인다면 안수기도까지 한 사람이 환자의 여명을 몰랐다고?’ 이렇게 자책의 옷을 입고 몸집을 키우던 나의 교만은 마침내 감히 주님과 견주는 데까지 뻗어나갔다. ‘주님께서는 외아들을 잃은 과부를 위로하려고 일부러 나인이라는 고을에 찾아가셨어. 그제자라면서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지?’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말하지 않는다고 엄마가 까맣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며 눈물짓던’ 환자의 어머니를 기억하게 하셨다. 그 모습이 ‘말하지 않았다고 사제가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게 말이 되냐며 자신을 쥐어뜯는’ 나와 똑 닮았다는 생각이 든 순간, 그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한가로이 자책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때는 사제를 기다리다 눈 감은 환자의 영혼을 주님의 자비에 맡겨드리고, 자책하고 있을 그 어머니를 찾아가 아픈 속내를 들어드리기에도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었다.

카파르나움에서 백인대장의 병든 종에게 건강한 몸을 돌려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에” 나인이라는 고을로 가셨다. 나를 일깨우며 자책할 때가 아니라고 하셨듯, 나의 주님도 백인대장의 믿음에 감탄하고만 계실 때가 아니었으리라. 낫 놓고 외아들의 상여를 따르는 과부의 고통에 서둘러 가 닿으셔야 했기에… ❁



교구
소식

한마음 성경공부 1단계 _ 구약 인물들과의 영성적 만남

강사 김경진 베드로 신부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본관

회비 12만원

문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www.ucatholic.or.kr - 교구소식] 참조

신청 ▶



파주 EXODUS 사회교리 특강

주 제	강사	날짜	시간	장소
사회교리의 역사, 사회복지와 사회사목	박성욱 신부	9/21(토)	19:30 ~ 21시	정발산 성당 강당
이주의 시대, 난민은 누구인가?	김향수 신부	10/19(토)		
기후 위기의 시대, 창조 질서 보전	김승연 신부	11/16(토)		
전쟁의 시대, 평화의 길	강주석 신부	12/21(토)		

문의 031-948-8105~6

성경의 세계

일시 10/16~11/20, 매주(수) 14시~16시 [총6회] 장소 신앙교육원 (대면)

강사 주원준 박사, 송해경 박사, 김선영 박사 방식 대면 또는 비대면 (택 1)

회비 1인 6만원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앙교육부

신청 ▶



천주교 의정부교구 건설 협력사 모집

분야 건설공사 -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보유 회사

접수 8/30(금)까지

문의 031-850-1427 관리국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www.ucatholic.or.kr - 교구소식] 참조

의정부교구 피델리스 청소년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부문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클라리넷, 오보에, 플룻, 트럼펫, 타악기

일시 9/8(주일) 13시

장소 피델리스 연습실 (대화마을 성당)

준비물 악기, 오디션곡 악보(자유곡)

문의 010-8419-0073

의정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된 분은 9/6(금)까지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성명 유창준, 문선영 히야친타

문의 031-850-1507 (주말, 공휴일 휴무)



기억합니다.

8월 23일은故 김주용 암브로시오 신부의
5주기입니다.



미사 · 피정 ▶▶

김대건 신부님과 새남터 순교자들을 위한 현양미사

날짜: 9/21(토)
장소: 순교성지 새남터 기념성당
특강: 14시, 원종현 야고보 신부
미사: 15시,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사제단
순교자 현양 음악회: 16:30, 소프라노 강혜정
문의: 070-8672-0327 새남터 성지안내소
※ 10인 이상 단체는 사전 전화 접수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 - 생태피정

강우일 주교의 제주 이야기. 자연순례, 성지순례
날짜: 10/2~4, 10/25~27, 11/1~3, 11/15~17
장소: 성 이시돌 피정의 집 (한국통합사목센터)
대상: 개인, 단체 (본당 사목위원, 구반장 환영)
문의: 010-9670-9775, 010-2231-2074

세계복음화 ICPE 흠숭기도회 및 미사

일시: 9/1(주일) 15시~18시 (미사있음)
장소: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합정동)
문의: 010-8724-4787, ICPE 카톡플친

렉시오 디비나 피정

일시: 9/23(월) 15시 ~ 29(주일) 13시 [6박7일]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강사: 이영근 아오스당 수사
내용: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와 실제
문의: 010-5230-2986

렉시오 디비나와 첫토요 신심미사

일시: 9/7(토) 14시~17시 [무료]
장소: 양주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강사: 이영근 아오스당 수사
문의: 010-5230-2986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8/30(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강사: 황인숙 마리아 (서울대교구 찬양선교사)
주제: 하느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문의: 010-2127-0032

성 베네딕도 문화영성센터 개관기념 가을 문화 피정

9/27(금) 15시 ~ 28(토) 13시, 승효상 건축가
11/8(금) 15시 ~ 9(토) 13시, 공지영 작가
11/15(토) 15시 ~ 16(주일) 13시, 김탁환 작가
장소: 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회비: 회당 9만원 (접수 후 입금)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일시: 8/24(토) 14시 ~ 29(주일) 14시
장소: 초정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손동훈, 서정혁 신부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 (찬양팀)
회비: 2만원 (청소년 무료)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9/13(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다네이영성수련피정: 10/25(금)~27(주일)
단식피정: 11/25(월)~29(금)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907 기후정의행진 거리미사

일시: 9/7(토) 13시
장소: 논현역 4번 출구 앞 (7호선, 신분당선)
주례: 강우일 베드로 주교
문의: 031-850-1492 환경농촌사목위원회
※ 순교와 불타는 지구를 상징하는
붉은 색 옷이나 소품을 착용해주세요.

가정선교회 9월 피정 및 미사

성가정 영성 피정: 9/4(수) 박재찬 신부, 이현주 회장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9/7(토) 김현우 신부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피정: 9/21(토) 장재봉 신부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시간: 12:30~17시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말연시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자연순례: 9/7(토)~9(월), 9/21(토)~23(월),
9/26(목)~28(토)
추차도포함: 9/11(수)~14(토), 10/5(토)~8(화),
11/16(토)~19(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지혜의 샘 9월 피정

찬양치유 대피정: 9/2(월) 10시~17:30
강사: 이상희 신부, 한영임 회장
순교자 성월 피정: 9/11(수) 10시~17:30
강사: 이용권 신부, 한영임 회장
내적치유 대피정: 9/23(월) 10시~17:30
강사: 박현민 신부, 서인석 신부,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지혜의샘 5층
문의: 010-3248-9705

의정부교구 5지구 영성피정

일시: 8/26(월) 13:40~16:30
장소: 화정동성당 403호
강사: 김현우 신부 (인천교구 해양이주사목)
문의: 010-8917-0090

biblio Drama 청년피정 - 성령선교수녀회

일시: 8/31(토) 20시 ~ 9/1(주일) 10시
장소: 명륜동 본원
대상: 만 40세 이하 미혼 여성
회비: 8만원
문의: 010-2691-4895 (문자신청)

교육 · 모집 ▶▶

파주시장애인주관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일산 여정 성경공부 - 2024년 2학기 줌 수업

8/26: 역사서2 (열왕기~마카베오기)
매주(월) 20시~22시
8/27: 요한복음, 매주(화) 10시~12시
8/27: 역사서1 (여호수아기~사무엘기)
매주(화) 20시~22시
문의: 010-8352-9986 일산 여정

향심기도 소개 강의

일시: 9/6부터 매주(금) 14시~15:30 [4주간]
장소: 명동대성당 영성센터 A313호 (구. 계성여고)
강사: 이승구 신부
회비: 1만원 [4회]
문의: 010-4565-8898

2025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여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 (※ 만 30세 이상)
접수: 9/9(월)~13(금) 인터넷, 면접: 11/1(금)
문의: 02-740-9704, 9705
<https://songsin.catholic.ac.kr>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임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행신2동 성당 관리인 채용

자격: 고졸 이상, 세례받은 교우
업무: 시설관리, 영선관리, 경비 등
접수: 9/25(수)까지
문의: 031-979-4071
※ 자세한 내용은 교구 홈페이지 참조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5 신입생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 특성화 대학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선정,
취업률 79.8% 전국 6위, 신입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신입생 기숙사 100% 입학 가능
모집: 간호학과, 자율전공학부
접수: 9/9(월)~13(금)
문의: 043-270-0100, 0119

성체조배를 위한 8주 교육

일시: 9/7~11/2, 매주(토) 10:30~13:30
장소: 스승예수의제자수녀회 (미아동 본원)
강사: 김 마리아 제수이나 수녀
내용: 강의와 기도하기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송림동)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 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호평동 성당 관리장 모집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임신부 추천서,
 교적증명서,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접수: 8/30(금)까지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1로 73번길 27
 호평동성당 (12142)
※ 자세한 사항은 교구 및 본당 홈페이지 참조

로마서 강의

일시: 9/4부터 매주(수) 14시~16시 [10주]
장소: 평내성당 / 주제: 로마서
강사: 추교윤 신부 / 회비: 1만원
문의: 031-595-8751 평내 성당

세인트에프렘 앙상블 단원 모집

대상: 성음악에 관심 있는 55세 미만 신자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파트당 2명)
연습: 매주(화) 19:30, 원당 성당
문의: 010-5446-7383

2024/가을 서울대교구 문화학교

날짜: 9/3(화)~11/7(목) [선착순 접수]
내용: 영성, 인문학, 미술사, 교회사, 문화
장소: 서울대교구 영성센터 (명동)
접수: 문화학교 홈페이지 culture.catholic.or.kr



(소규모 양로원) 우양의 집 물품 판매

가격: 청국장(500g) 1만원, 된장(1kg) 2만원,
 연잎밥 1만원(택배가능)
 (모든 재료는 국내산으로 직접 제조)
문의: 031-943-2120, 010-9271-4694
 프란치스코전교봉사수녀회

콘서트 <스물두 번째 편지>

김대건 신부가 남긴 편지를 통해 불꽃같은 그의 삶을 그리는 '스물두 번째 편지'
일시: 8/30(금) 19시
 8/31(토), 9/7(토) 16시, 19시
 9/1(주일), 8(주일) 16시
 9/2(월), 9(월) 19시
 9/3(화)~6(금), 9/10(화)~12(목) 14시
장소: 명동대성당 내 코스트홀
예약: https://naver.me/xOx8aA7a
문의: 02-3789-7702

가톨릭 여행사 성지순례

10/23(수) 발칸 3개국, 메추고리에, 헝가리
12/20(금), 1/17(금) 이탈리아 일주 (희년 전대사)
1/7(화), 2/11(화) 유럽 4개국 성모님 발현지 (12일)
1/17(화), 2/14(금), 3/14(금) 시칠리아, 몰타 (10일)
3/10(월)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catholictravel.co.kr
 가톨릭회관 619호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 42일

출발: 3/30(주일) / 비용: 599만원 (+2,100유로)
가톨릭 트래블 - 루르드, 파티마 포함
문의: 070-4086-0207, catravel.co.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2/3(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 (5일, 145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교메스심리상담소 - 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주1회)
상담자: 010-3201-0520 노경덕 신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DIocese of Uijeongbu

미사

순례

양주순교성지 성전 기공미사

일시: 9/1(주일) 11시
장소: 양주순교성지 (양주시 부흥로 1399번길 62)
주례: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문의: 031-841-1866 양주순교성지

의정부교구 청년 도보순례 참가 모집

날짜: 10/5(토)~6(주일)
여정: 의정부교구 신앙의 길
신청 ▶
문의: 031-850-1460,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 채널

성수 (聖水, Aqua benedicta)

가톨릭 신자들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긁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크게 낮설었던 일들 중 하나가 성수대에서 성수가 치워진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성수는 종교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며 사제가 축복한 물입니다. 특별히 성수는 오염되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되도록 축복할 때 소금을 넣곤 합니다.

성경에서 물은 크게 세 가지 신학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물은 생명의 기원으로서 모든 생물의 다산과 풍요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둘째, 물은 죽음의 상징입니다. 인간을 비롯한 육상 동물에게 물의 범람은 치명적인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 점을 잘 보여줍니다. 셋째, 물은 정화의 수단입니다. 더럽혀진 몸과 의복을 닦아내는 물은 죄를 씻어내는 영혼의 정화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생명수로서의 물(시편 104,10; 집회 24,25-27; 예제 47,1-12; 마르 9,41), 죽음과 단죄로서의 물(창세 7장; 시편 124장), 정화수로서의 물(시편 51장, 예제 36,25-27; 마르 7,2-4; 요한 13,1-15)은 전례에서 사용되는 성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당 입구에서 성수를 찍어 성호를 그음으로써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에 방해되는 죄스러움과 악마에게서 벗어나 정화됩니다. 또한 세례 때의 은총을 다시 되새깁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또는 “주님, 이 성수로 세례의 은총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바칩니다.

성수는 여러 축복 예식에서도 사용됩니다. 다만, 성수와 세례수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성수는 미사 때 또는 미사 밖에서 축복되지만, 세례수는 세례성사 전이나 파스카 성야 미사 중에 축복됩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도 다릅니다. 또한 성수에는 통상적으로 소금을 넣지만, 세례수에는 소금을 넣지 않습니다. 세례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은 자연수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기 전, 성수를 찍고 성호를 그으며 ‘정화’와 ‘새로 남’이라는 의미를 생각한다면, 주님 앞에 나서는 마음을 더욱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홍유선 임마누엘	주 임 신 부	<h1 style="text-align: center;">행 주 성 당</h1>  <p style="text-align: center;">성모몽소승천</p>	토 요 일	19:00 토요저녁주일미사
031-974-1728	사 무 실		주 일	09:00 주일 아침 미사 11:00 교 중 미 사
031-972-8537	팩 스		평 일	11:00 월, 화, 수, 목, 금
sd.uca.or.kr/hjsd1909	홈 페 이 지		성 시 간	15:00 매월 첫 금요일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소		성모신심미사	11:00 매월 첫 토요일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당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 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소식

■ 이번 주 본당 축일 명단

27일 (모니카): 전은실, 유미형

28일 (아오스팅): 양남수

■ 9월에 기억해야 할 본당 선종 교우

이경섭(안토니오), 윤대병(마리아), 장홍준(공사가)

류수안(미카엘), 이영득(로렌시아), 장병(미카엘)

전요한, 김부성(요한)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9월 4일 수요일 오전 11시

전례

■ 9월 성시간

일 시: 9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많은 분 들이 참석하시어 주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9월 7일 토요일 오전 11시

본당공지

■ 홍유선 임마누엘 주임 신부님 교구 사제 연수

일 시: 9월 10일(화) - 11일(수)

사제 연수 기간 동안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월 봉성체

일 시: 9월 5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8월 연령회 월례회의

일 시: 8월 25일 주일 교중 미사 후

■하느님의 집 2차 헌금

다음 주일에는 교구 내 성전 부지 마련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추석 합동 위령 미사 접수

합동 위령 미사 시간: 9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9월 15일 주일까지
본당 사무실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 9월 18일 수요일 오전 11시
미사는 없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성 (8월 12일 ~ 8월 18일)

■ 교무금, 주일헌금

교 무 금	1건	60,000원
주 일 헌 금		1,034,000원

■ 감사 헌금

오승훈	500,000원	이동준	100,000원
-----	----------	-----	----------